▶▶ 매일 INDEX

5면
소통·공감의 시간
전북교육 '홈커밍데이'

전주매일
www.jjmaeil.com
2020년 7월 31일 금요일 (음 6월 11일) 제2590호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곽경문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 "신속한 복구… 폭우 피해 최소화"

## 도내 평균 144.8mm 강한 비… 道, 긴급상황회의
## 산사태 등 17건 피해속출… 오늘까지 최고 150㎜

전북도내 일부지역에 호우특보가 발효되고 비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송하진 도지사는 긴급 상황대책회의를 열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총력 대응을 당부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30일 오전 9시30분 도 재난대책상황실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일선 시군의 피해와 대응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송 지사는 "현재까지 내린 많은 비로 땅이 물을 많이 머금고 있어 주민들의 안전이 걱정된다"며 "기존에 호우 피해가 있었던 지역은 사전에 점검하고 언론과 마을방송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주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 달라"고 강조했다.

송 지사는 일선 시,군 공무원에게 "호우에 취약한 저지대나 침수 우려가 있는 하천 등 위험지구에 대한 사전 예찰활동을 강화해 달라"며 "도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복무하고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복구에 나서 피해를 최소화해 달라"고 지시했다.

전북도는 일선 시군과 함께 24시간 기상 모니터링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저수지, 산사태취약지역 등 재해위험지역 점검 및 예찰을 강화하는 등 지속적인 강우로 인한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전북도에 따르면 30일 전주·군산·익산·김제·완주·진안·무주에 호우경보가 정읍·남원·장수·임실·순창·고창·부안 호우주의보 등 도내 전체 14개 시·군에 호우특보가 발효되어 도내 평균 144.8mm의 많은 비가 내렸으며 피해상황들이 속속 집계되고 있다.

시·군별 강우량은 진안 235.0mm, 완주 224.6mm, 전주 176.2mm, 순창 166.9mm, 무주 163.6mm 순으로 많은 비가 내렸으며 지역에 따라 군산 말도 127.5mm, 군산 산단 213.0mm, 순창 풍산에는 177.5mm 등 더 많은 비가 내렸다.

29일 낮부터 늦은밤까지 이어진 호우로 인해 큰 피해는 없었으나 30일 새벽부터 아침사이 많은 비가 지역별로 집중적으로 내리면서 도로통제, 산사태, 농작물 침수 등 현재까지 총 17건의 피해가 접수됐다.

주요 피해로는 지방도 3개 노선 및 국도 1개 노선의 토사유출로 인한 도로 통제와 임야 토사유출 3건이다.

전주시내 하천 수위 상승으로 언더패스와 둔치주차장 등이 인명사고 우려로 인해 통제중이며 정읍의 경우 비가 적게 내려 현재 둔치주차장은 개방했다.

또한 정읍시 칠보면에선 산사태 발생으로 주택일부 파손 및 침수로 일가족 3명이 마을회관으로 임시 대피했다.

더불어 농작물피해도 8건이 발생, 부안 61ha, 고창55.3ha, 진안 15ha 등 총 148.4ha의 농작물들이 물에 잠기는 피해를 입었다

기상청에 따르면 장마가 31일 까지 이어지고 당장 도내에 50 ~ 150mm의 비가 또 예보됨에 따라 방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유호상 기자

송하진 도지사는 30일 오전 9시30분 도 재난대책상황실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일선 시,군의 피해와 대응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 용인 코로나19 확진자 전북 다녀가

## 전북도청·완주군청 '비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기도 용인 확진자가 전북도청과 완주군청을 차례로 방문한 사실이 드러났다.

전북도와 완주군 방역당국에 따르면 30일 오전 11시경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경기 용인 125번 확진자 A씨(40대 남성)가 3일 전인 27일 전북도를 방문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당일 오후 2시15분경 KTX로 전주역에 도착한 뒤 2시30분부터 약 2시간가량 완주군청 도로교통과 직원 2명과 군청 인근 커피숍에서 대화를 나눴다. 이들 모두는 당시 마스크를 벗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오후 4시40분부터 약 20분간 전북도청 도로교통과 사무실을 방문해 직원 1명과 만났다. 이들 두 명 모두 마스크는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오후 5시 택시를 이용해 전주역에 도착했고 6시45분경 익산역에서 환승한 뒤 화성동탄역에 하차했다.

현재 도내 접촉자는 완주군청 공무원 2명, 전북도청 공무원 1명, 택시기사 2명 등 총 5명이다.

전북도청 직원의 경우 업무 차 제주도에 출장을 가 제주도에서 검사를 받았다.

도와 완주군은 청내 엘리베이터와 대화를 나눈 사무실 소독과 함께 카페에 대해 폐쇄 후 소독을 실시했다.

도 보건당국 관계자는 "현재 이들 5명에 대한 검체 채취를 마치고 검사중"이라며 '노청 주무관의 경우 확진판정을 떠나 제주도에서 2주간 자가격리가 진행된다"고 말했다. /유호상기자

## 농업과학관 부분 재개관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코로나19로 인해 임시 휴관 중이던 농업과학관을 오는 8월 3일부터 평일에 부분 재개관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지역 확산세가 주춤하고 중앙재난안전 대책본부의 공공시설 운영제한 조치 완화 결정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농업과학관 내 농기구전시관, 현대농업관, 미래농업관, 신기술전시관을 우선적으로 재개관한다. 다만, 어린이체험관, 4D영상관처럼 실내 밀집도가 높고 신체활동 시 접촉 우려가 있는 밀폐된 공간은 당분간 휴관을 유지한다. /김윤상 기자

## 전북도, 예산정책협의회

전북도는 31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전북지역내 국회의원 10명과 송하진 전북도지사를 비롯, 도내 14개 시장, 군수들이 참석하는 예산정책협의회를 갖는다.

이날 협의회는 송하진 도지사가 회의를 주재, "도정 주요 현안 및 2021년 국가 예산 확보"에 대해 토의한다. /유호상기자

# 전북 혁신도시 '자산운용 금융도시' 로

## 국민연금 중심 세계적인 금융도시로 나아가는 발판 마련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1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공공기관 선도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생동하는 혁신도시 만들기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본 발표 내용에서는 전북 혁신도시를 국민연금기금을 기반으로 '자산운용 중심 금융도시'로 조성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는 전북도가 국민연금공단과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던 '국제적인 자산운용 중심 금융도시로의 육성' 방안이 기재부 및 관계부처에 설득력을 얻어 각종 지원책이 마련된 것이다.

그동안 전북은 혁신도시 활성화 및 지역혁신생태계 구축을 위해 국민연금공단과 유기적으로 협력해왔다.

그 일환으로 지난 5월 국민연금공단과 공동으로 전북혁신도시 발전방안을 기재부에 제출한 바 있으며, 기재부는 6월 전북혁신도시를 현지방문하여 전북도의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지난 23일에는 기재부 주관 혁신도시 발전방안 간담회에 참석하여 전북혁신도시가 제3의 금융도시로 육성을 위한 정부의 적극 지원을 건의했다.

이에 정부는 전북도가 금융타운 조성을 위해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국제금융센터 건립을 위한 행정절차(행안부 지방재정 타당성조사 및 중앙투자심사)를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동안 장기임대만 가능하였던 전북혁신도시 클러스터 부지를 민간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지원해 전북금융타운 내 호텔·컨벤션 건립 등을 위한 민간투자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민연금공단이 기금수탁기관 선정시 전북혁신도시에 지점을 설립하는 경우 가점부여 등 우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도내 금융기관 유치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국민연금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빅데이터를 민간에게 개방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 포털시스템 구축사업(2021년 신규, 8억원)'을 지원해 연금납부정보, 기금투자정보 등을 활용한 도내 핀테크 창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국민연금기금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한 기금운용 전문인력 역량 강화와 신규자 양성도 적극 지원하기로 해 도내 자산운용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호상기자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